

월드컵 앞두고 공연·축제 줄이어

미리보는 불교문화마당 2002

1·2월

한·중 범패음악회 = 15일 대만 국가회극원 주최로 열리는 한·중 범패음악회에는 대만의 범패음악과 영산재 이수자 범현스님의 전통 범패가 선보인다.

전통사찰음식전 =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1기 졸업생들의 작품전이 12일~14일 서울 안양동 보타사에서 열린다.

3·4월

관음보살 주제 목조각전 =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보유자 허길평씨의 조각전이 3월 말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금강문화대전 = 국립공주박물관의 금강문화대전은 백제문화지역인 금강과 차령의 역사와 문화' 특별전과 '금강의 소리를 찾아서'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4월 22일부터 월드컵 기간까지 열린다.

조선시대풍속화전 =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등의 풍속화를 전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 3월 12일부터 7월 말까지.

패불탱 특별전 = 봉도사성보박물관이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하는 기획

전으로 전국 사찰에 소장된 패불을 소개한다.

5·6월

신라의 금동불전 =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금동불 및 일본 금동불 전시를 통해 한·일간의 미의식을 비교할 기회를 제공한다. 5월 20일~6월 30일

연등축제 = 2546년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불교 대축제인 '연등축제'가 동대문과 조계사 일대에서 열린다.

지구촌 등 축제 = 월드컵 기간 동안 서울 남산 한옥마을 일대에서 불교 전통 등을 비롯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멕시코 등 세계 30여개국의 등이 선보인다.

오페라 팔만대장경 공연 = 월드컵 기념 공연으로 서울예술단에서 준비 중인 오페라 팔만대장경이 5월 중 막을 올린다.

월드컵 출전국 작가 합동 전시회 = 열과 언어'를 주제로 월드컵 출전 32개국 작가 100명의 작품이 월드컵 기간 중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다.

7·8월

만해축전 = 만해 한운은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만해축전이 8월 초 강원도 백담사 일대에서 열린다. 만해



부처님 오신날을 시작으로 5월~6월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5월 31일 월드컵 개막에 앞서 선보일 우리 오페라 팔만대장경의 한 장면.

시인하고, 만해백일장 등이 진행된다.

삼척세계동굴박람회 = 한선굴·관음굴이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 삼척에서 열리는 세계최초의 동굴박람회. 세계의 다양한 동굴문화를 엿볼수 있다. 7월 10일~8월10일

9·10월

초의문화제 = 초의스님의 사상과 우리 차에 깃든 문화를 나누는 축제가 대둔사 일대에서 펼쳐진다.

전주 세계 소리축제 = 불교 전통 범패

를 비롯해 우리의 민속음악과 세계 전통 민속음악, 현대의 음악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10월 중 개최 예정.

11·12월

화순 운주대축제 = 화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공유하는 화순 운주 대축제는 11월 중 운주사 일대에서 열린다.

여수 항일암 일출제 = 12월 31일 관음기도 도량인 항일암에서 일출을 보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만남의 장이 펼쳐진다.

문화담당 = 이은지 기자 ejlee@oudho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신사년이고 가을의 해인 임오(壬午)년의 아침해가 다시 찬란히 떠오른다. 가을이 온 이후 '지은 만큼 받는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면서부터, 분수에 맞지 않는 욕을 비는 일일평은 그만두었다. 하지만 이웃과 함께 보다 밝은 내일을 기원하는 일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새해에는 인류가 보다 많은 공공의 선업(善業)을 쌓아올리도록 축원해본다.

지난 연말 한 해를 반성하면서 미처 인사드리지 못한 분들을 떠올리다가, 여의도에서 무병 중년 시인 구상 선생이 생각났다. 선생은 수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려운 시기에 놓였다가,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연한 나이(1919년 생) 관계로 최근엔 거동이 매우 불편하다. 외병 중에도 예외의 그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후배를 맞으며 파세문안의 연하장을 건네주시는데, 그 안에는 '새해 초하루'라는 시가 적혀있었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짜기 웅덩이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 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르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시에는 불교적 인과론과 기독교적 영원(永遠) 개념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카톨릭 집안에서 자란 인연과 일본 유학 중에 불교를 공부한 인연이 서로 상응하여,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처럼 선미(禪美)가 물씬 풍기는 구절이 나온 것 같다. 선생은 그만 일어서 나오려는 후학에게 당부하듯이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불교경전의 하나인 <잡보장경>에는 '무재칠시(無財七施)' 즉 가진 것 없이 베푸는 7가지 방법의 가르침이 있다. 첫째는 눈으로 베푸는(眼眼)인데, 자비스러운 눈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킨다. 둘째는 온화한 얼굴로 베푸는(面施), 셋째는 따뜻한 말로 베푸는(言辭施), 넷째는 몸으로 돕는 베푸는(身施), 다섯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푸는(心施), 여섯째는 자리를 양보하는 베푸는(坐施), 일곱째는 일 자리를 제공하는 베푸는(功舍施)으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즉석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시(布施)이다."

선생은 여기다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보살도(菩薩道)의 정신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였다. 새해에는 가진 것 없이 베풀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덕이 달리는 말처럼 힘차게 뻗어가기 기대해본다.

■문학평론가

가을 만한 전시 2편

옛 추억의 향수 느낀다

흥겨운 우리놀이展 갤러리 사바나



오상일 작 '굴렁쇠 놀이'.

인터넷 게임과 정채불광의 서양 놀이에 밀려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놀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흥겨운 우리놀이展'이 열린다.

2일부터 2월 8일까지 서울 관훈동 갤러리 사바나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우리 조상들이 즐겨했던 굴렁쇠놀이, 연날리기, 줄타기, 자치기, 팽이치기, 쥐잡놀이, 차전놀이, 닭싸움 등의 전통 놀이를 조각과 회화, 설치미술 등 순수 미술 작품으로 재해석해 표현했다.

이번 전시는 새해를 맞아 어린이들에게는 우리의 전통을,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의 향수를, 외국인들에게는 진정한 한국의 놀이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736-4371)

화폭에선 말들이 뛰다

말이 있는 그림展 양평 인더갤러리



김점선 작 '말'.

2002년 우리 자신의 꿈을 싣고 뛸 말은 어떤 모습일까? 말띠 해를 맞아 말이 있는 그림전'이 경기도 양평 인더갤러리에서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린다.

살의 활력에 가득 차서 불만이 전혀 없는 행복한 표정의 말, 눈을 감고 즐기고 있는 말, 상상속에서나 나올 듯한 상징적인 모습의 말, 우스꽝스러운 보이지만 뭔가 일을 벌일 것만 같은 긴장감이 느껴지는 말 등 다양한 말의 모습을 김점선 이은주 유양옥 등 3명의 화가들이 제각기 화폭에 담았다. 말이란 화두를 두고 갖가지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다. (031)771-6191



동성 스님 '축구공을 든 달마'

세계인의 축제인 2002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는 달마도가 등장해 화제다. 미술잡지 '아티스트'가 1월호 표지작품으로 동성스님의 '축구공을 든 달마'를 실었다.

30년 간 달마도를 그려온 동성스님은, 이번 작품에서 보리 달마의 공(호)사상과 월드컵 경기에서 사용되는 공이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공양구에 축구공을 받쳐 든 달마의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02736-2585)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시공일련등용 ▶ 전선 케이블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시설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팔모주름등

팔모조림등

육각등

공단등



보관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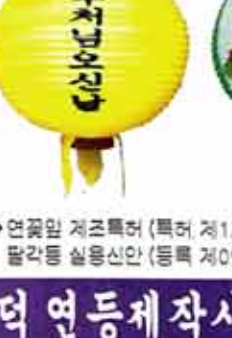


신제품

종 등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만월등

• 종 소리는 자유 장식을 구할 수 있고 역압과 고압을 맞추기 쉽고 여러 색 사용은 손쉬우며 전선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쉽게 장식할 수 있는 신제품 등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연등만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031)792-6288, 794-4055
전택 홈페이지: www.chanduk.com
경기도 하남시 중곡동 180-1 e-mail: chanduk21@hanmail.net